

구급차를 바르게 이용합시다

~ 구급차 언제 필요할까요? ~



〈 발행 목적 〉

최근, 구급차의 출동건수와 이송인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로 이송된 사람의 약 절반에 가까운 인원수가 입원이 필요없는 경상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구급차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급차를 바르게 이용합시다 ~ 구급차 언제 필요할까요? ~」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 안에는

구급차를 불렀을 때 준비해 두어야 할 것 등 「구급 신고 포인트」, 위중한 중병이나 부상의 가능성이 있는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실제로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의 「구급차 요청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급차나 구급의료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이용하여 구급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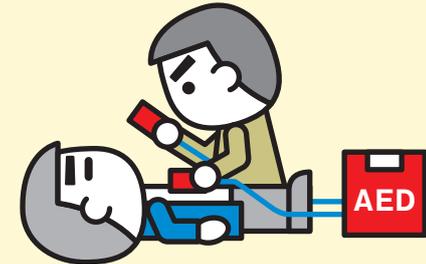
구급 신고 포인트

구급차를 부를 때의 전화번호는 「119번」입니다.

살릴 수 있는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응급처치**를 익혀 둡시다

AED를 누군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십시오.



평균 7.9 분
(2009년 중)



가까운 소방서에서는 **응급처치**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전화번호는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외에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가 올만한 곳까지** 나가 안내를 해 주시면 도착이 빨라집니다



구급차를 불렀다면, 이러한 것들은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 여권
- 의료보험증이나 진찰권
- 돈
- 신발
- 평소 복용중인 약 (복약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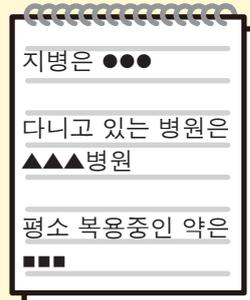


- (영유아의 경우)
- 모자건강수첩
 - 일회용 기저귀
 - 우유병
 - 타올



구급차가 도착하면, 이러한 것들을 알려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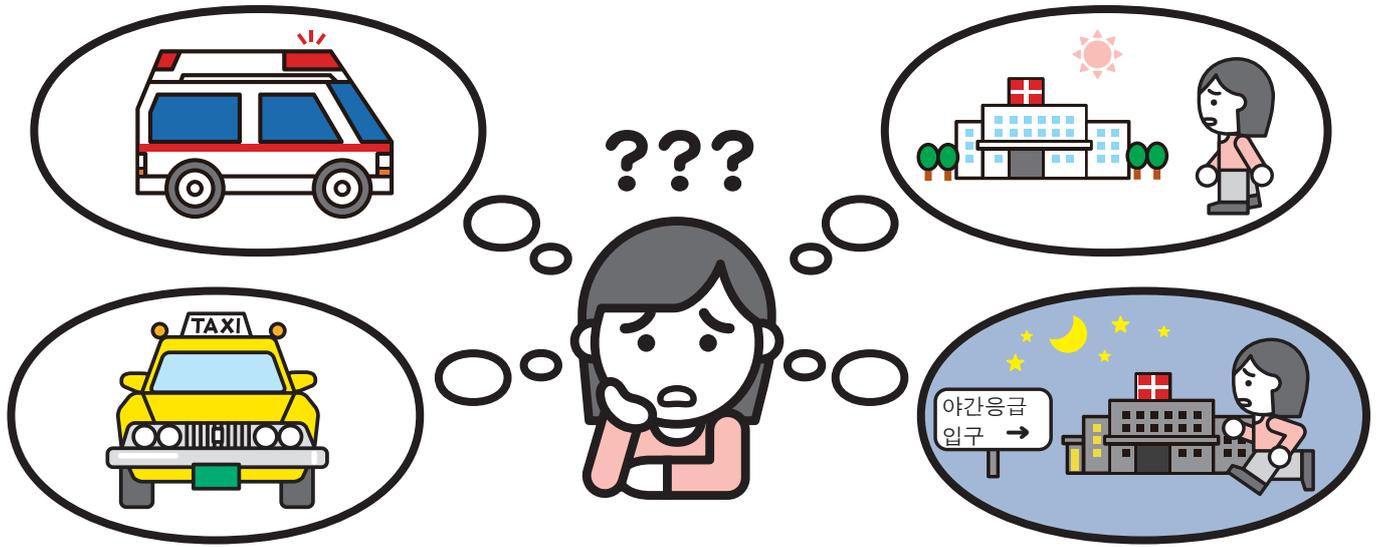
- 사고나 상태가 나빠진 상황
-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변화
-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 상태가 나쁜 분에 대한 정보 (지병,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클리닉, 평소 복용중인 약, 의사의 지시 등)



* 지병,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클리닉 등은 평소 메모하여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구급상담 창구에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좋을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을지,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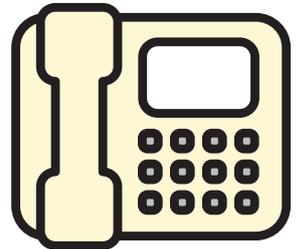


그럴 때에는

살고 계신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구급상담 창구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전화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 ☎ **#7119** 구급상담센터 (도쿄도)
구급안심센터 (오사카부, 나라현)
- ☎ **#8000** 소아구급의료전화 상담사업
※각 도도부현에 창구가 있습니다.



 MEMO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 (어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119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

- 얼굴 반쪽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려온다
- 웃으면 입이나 얼굴 한쪽이 비뚤어진다
-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말을 하기 어렵다
- 시야가 흐리다
- 사물이 갑자기 이중으로 보인다
- 안색이 너무 나쁘다



머리

-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
- 갑작스런 고열
- 기대지 않고는 설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휘청거린다

가슴 /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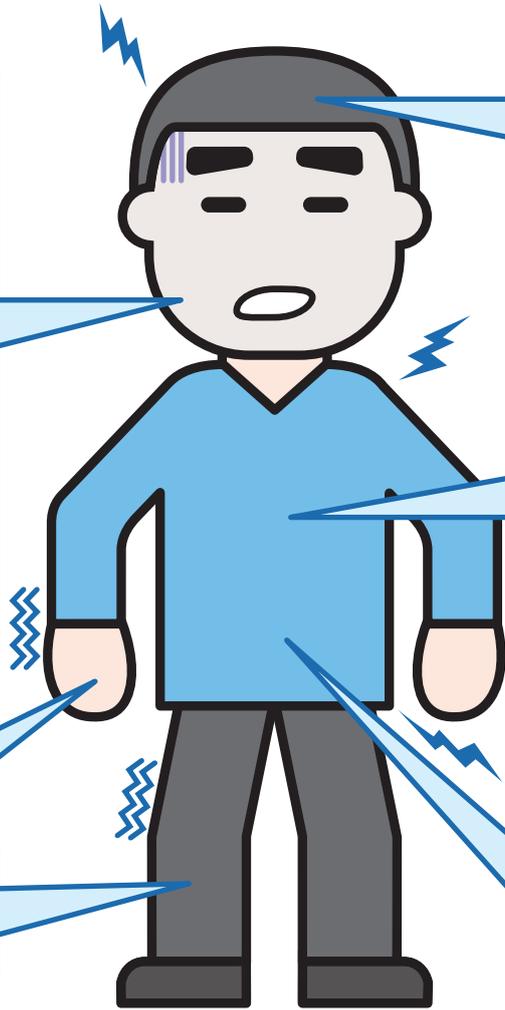
- 갑작스런 격통
- 갑작스런 헐떡임, 호흡곤란
- 가슴 중앙이 조르는 듯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2~3 분 지속된다
- 통증 장소가 이동한다

손발

- 갑작스런 저림
-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배

- 갑작스런 극심한 복통
- 지속적인 극심한 복통
- 토혈이나 하혈이 있다



의식 장애

- 의식이 없음 (대답이 없음) 또는 이상함 (몽롱함)
- 축 늘어져 있음



경련

- 경련이 멈추지 않음
- 경련이 멈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

상처 · 화상

- 대량 출혈을 수반하는 외상
- 광범위한 화상



구역질

- 한기와 땀을 수반하는 강한 구역질

삼킴

-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어려움
- 이상한 물건을 삼켜 의식이 없음



사고

-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강한 충격을 받았음)
- 물에 빠졌음
- 높은 곳에서의 추락

◎기타, 평상시와 다른 경우나 상태가 이상한 경우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소아 : 15 세 미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119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

- 입술 색이 보라색이고 호흡이 약하다



가슴

- 극심한 기침이나 헐떡거림으로 호흡이 힘들고 안색이 나쁘다

손발

- 손발이 경직되어 있다

머리

- 머리가 아프며 경련이 있다
-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 의식이 없다
- 경련이 있다

배

- 극심한 설사나 구토로 수분 섭취를 못하고 식욕이 없으며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
- 극심한 복통으로 괴로워하며 구토가 멈추지 않는다
- 변에 피가 섞여 있다



의식 장애

- 의식이 없음 (대답이 없음) 또는 이상함 (몽롱함)

경련

- 경련이 멈추지 않음
- 경련이 멈추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

삼킴

- 이상한 것을 삼켜 의식이 없음

두드러기

- 벌레에 물려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안색이 좋지 않음



화상

- 통증이 심한 화상
- 광범위한 화상

사고

-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강한 충격을 받았음)
- 물에 빠졌음
- 높은 곳에서의 추락

생후 3 개월 미만의 갓난아이

- 유아의 상태가 이상하다



◎기타, 평상시와 다른 경우나 상태가 이상한 경우

구급의료 진료에 대해서

증상에 긴급성이 없어도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 「편리하니까」 「곤란한 상태라서」 라며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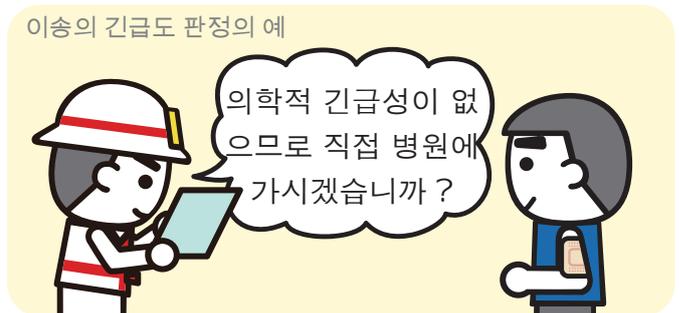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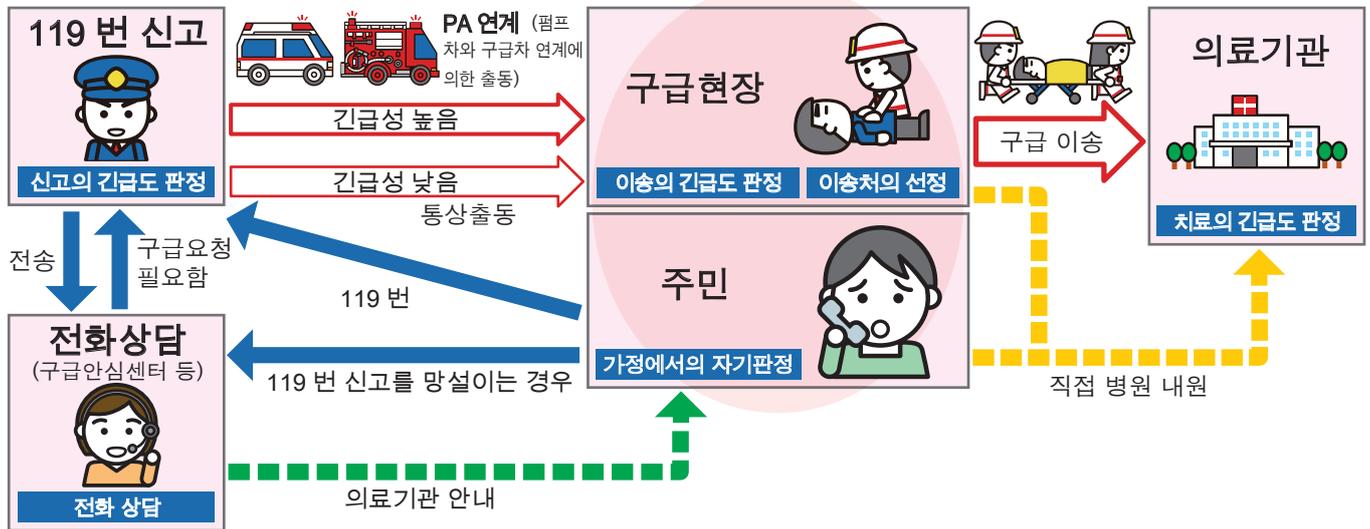
또한 「평일에 쉴 수 없어서」 라든가 「낮에는 일이 있어서」, 「내일은 출근이라서」 등의 이유로 구급외래를 야간이나 휴일에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급차나 구급의료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 자신의 안심을 위해 구급의료 진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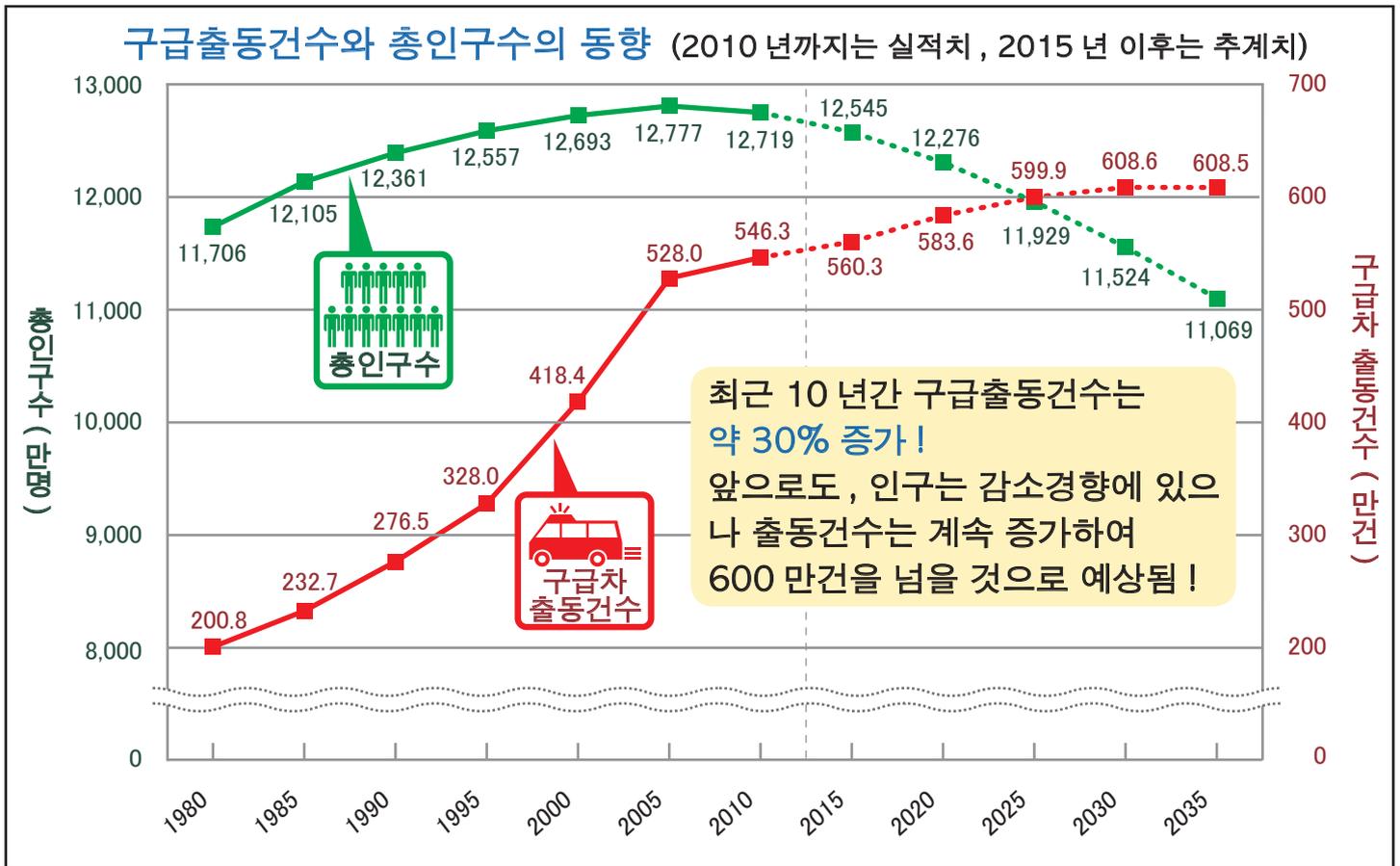
- 모기에 물려 가렵다
- 해수욕 후 햇볕에 타서 다리가 따갑다
- 종이에 손끝을 베었다. 피는 멎었지만...
- 병원에서 받은 약이 없어졌다
- 오늘 입원예정일이므로 병원에 데려다 주길 바란다
- 도우미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서 대신 구급차를 불렀다
-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귀찮아서 구급차를 불렀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확실히 구조하기 위해서는
긴급도에 맞는 구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긴급도 판정기준**을 공통으로 하여 구급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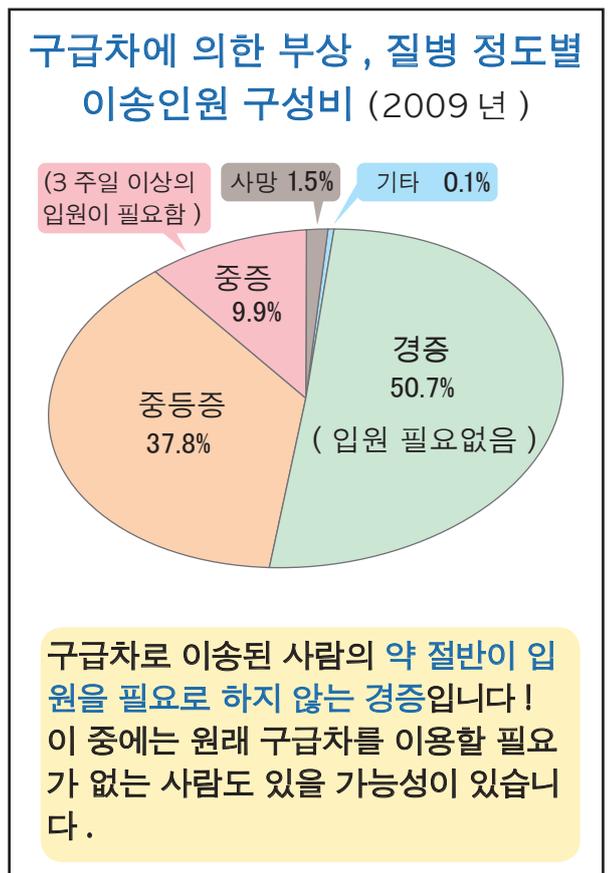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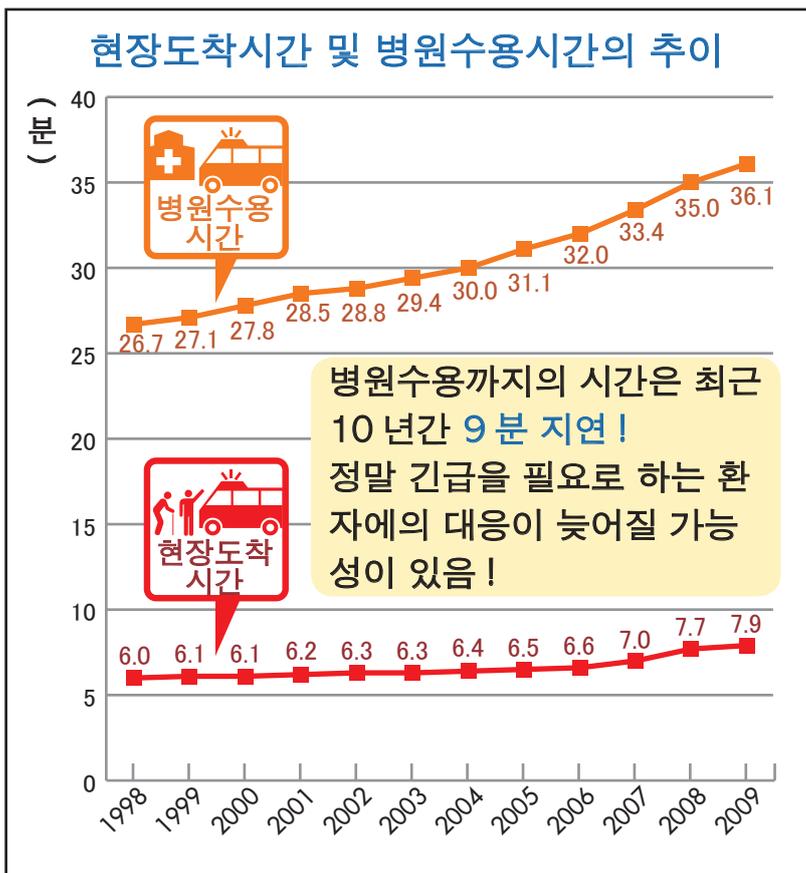
참고 : 구급출동의 현상과 장래 추계



※ 2010년 출동건수는 속보치

※ 추계인구는 「일본 시구정촌별 장래추계 인구」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작성)의 중위추계를 사용

※ 2015년 이후의 출동건수는 2007~2009년의 전국 구급이송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이송률 (구급차 이용률) 과 추계인구를 이용해 추계한 것으로 앞으로의 이송률 변화나 사회정세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



구급차 요청 방법

119 번 신고를 하면 상황직원이 구급차 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묻기 전이라도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19 번, 화재입니까? 구급입니까?

구급입니다.



1 구급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119 번 신고를 하면 우선 “구급입니다” 라고 알려 주십시오.



주소는 어디입니까?

○○시○○초메
○번지입니다.



2 구급차가 도착할 장소의 주소를 말한다

주소는 반드시 시정촌명부터 알려 주십시오. 주소를 모를 때에는 근처에 있는 큰 건물, 교차로 등 눈에 띄는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3 환자의 증상을 말한다

먼저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었는지 간결하게 알려 주십시오. 또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식, 호흡의 유무 등을 알려 주십시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입니다



4 환자의 연령을 말한다

환자의 연령을 알려 주십시오. 모를 때에는 “60 대” 와 같이 대략적인 연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화하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이름은 ○×미입니다.
전화번호는 ○○○-
○○○○- ○○○○입니다.



5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한다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119 번 신고 후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장소가 정확하지 않을 때 등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상황, 지병, 다니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십시오.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질문 내용입니다.